

완주군, 의료비 절감 앞장

사례관리로 119명 대상자 발굴... 2억1000여만원 의료급여 예산 절감

완주군이 지난해 적극적인 의료급여 사례관리를 통해 부정적 의료급여 이용으로 지출되는 의료비를 크게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3일 군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의료급여 대상자의 고령화 및 만성질환, 의료서비스 욕구 증가로 특정한 치료를 받지 않으면서도 의료급여기관에 장기 입원하는 대상자가 많아지면서 의료서비스 과다 이용으로 인한 의료비 지출이 크게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완주군은 의료급여 대상자 중 의료 소령, 약탈과다 등으로 건강악화가 우려되는 119명의 대상자를 발굴

해 집중적인 서신 및 전화상담, 가정 방문 등을 통해 제도 안내 및 의료이용 정보 제공, 건강 상담, 교육 등으로 체계적인 의료급여 사례관리를 진행했다.

그 결과 2016년 장기입원자 관리 및 고위험 과다이용자 사례관리를 통해 2억1,000여만원의 의료급여 예산절감 효과를 거두게 됐다.

실제 치매질환을 가진 상태로 거주지 및 보호자가 없어 의료기관에서 장기간 불필요한 입원 중에 있었던 이모씨(61세)를 발굴, 관내 노인요양시설에 연계시켜 보장시설 수급자로 보호를 받게 함으로써,

350여만원의 의료비 절감과 주거문제를 해결해주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이계임 사회복지과장은 "불필요한 장기입원으로 인한 의료비 증가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체계적인 의료급여 사례관리를 통해 수급자의 자가 관리능력 향상 및 의료급여대상 안정화에 기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2017년 완주군의 의료급여 수급자는 총 4578명이며, 이중 200명의 부정적 의료이용자를 대상으로 집중적인 사례관리를 수행하게 된다. /완주=이종복 기자



무주 문화관광해설사 '최고'

10명 참가 시연발표회 스토리텔링 실력 뽐내

무주군문화관광해설사 시연발표회가 지난 13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행사는 무주관광해설사의 전문 능력을 배양하고 아이템 공유를 통해 양질의 서비스, 감동을 주는 해설을 제공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으로 무주군 문화관광해설사 10명이 참가해 무주군의 역사·문화재 및 관광자원 등을 주제로 스토리텔링 실력을 뽐냈다.

이번 발표회에서는 김진남 해설사가 "고려의 숨은 공신 무주인 김신 장군"을 주제로, 김현순 해설사가 "희곡관중"에 대해, 박오목 해설사가 "반디랜드 생태온

실"을, 셀리비노강악 해설사가 "나비"에 대한 스토리텔링을 펼쳤다.

신미혜 해설사가 '무주의 자존심 태권도원'에 대해, 안옥선 해설사는 '구천동계곡 시간여행', 이진영 해설사는 '무주향교', 임옥민 해설사는 '산사에 울리는 목어소리', 정순옥 해설사는 '덕유산 주목나무', 조명재 해설사는 '구상화관람마당'에 대한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 주목을 받았다.

군 관계자는 △내용의 충실성과 △재미와 감동을 통한 대중과의 친화성, △자세·발음·어투 등 해설사의 기본소양, △스토리텔링의 독창성과 창의성 등을 심사해 수상자(참신 스토리 발굴상 2명 / 시나리오 작성 우수상 1명)를 선정(1월17일)할 계획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완주 만경강 하천 환경정비사업 가속도

삼례교~봉동교 신탁지구 이달 말 착공

완주군의 만경강 하천 환경정비사업이 이달말 신탁지구의 착공을 통해 오는 2020년 완공을 향해 가속도를 붙이고 있다.

지난 13일 완주군은 삼례교에서 봉동교에 이르는 신탁지구가 지난해말 발주에 이어 금년 1월말 착공을 앞두고 있다.

2020년까지 완공 목표로 추진되는 만경강 하천환경정비사업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24.2km구간을 3개 지구로 나누어 약 6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화전지구(익산 경계~삼례교) 및 어우지구(봉동교~오성교)는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다.

하천환경정비사업의 주요 시설로는 자전거도로 18.84km, 초지 조성 10만㎡, 보 개량 3개소, 제방도로 확장(하리교~회포대교) 2.5km, 교량 재기설 2개소 등이 있다.

특히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과 완주군은 우리고장 만경강을 지역의 문화가 살아 숨쉬는 대표적 자원으로 꾸꾸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만경강 하천환경정비사업이 완료되

면 연날리기장, 드론공원 및 전통문화공원, 봉동 생태문화공원, 세심정 생태문화공원, 습터 등과 어울리면서 만경강이 대표적 친수공간이자, 각종 레저와 문화공간으로 사랑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성일 군수는 "만경강은 완주군을 동서로 가로지르며 흐르는 만경들의 젖줄로서 호남평야 풍요의 근원이 되어 왔으며, 현재는 습지생태계의 대표적 표본으로 불리는 신전습지와 함께 비비낙안, 예술열차 등 생태관광자원으로서의 가치가 높다"며 "앞으로 만경강하천환경정비사업을 통한 만경강의 보전과 이용의 조화를 실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완주군, 품목별농업인연구회 군연합회 연시총회

임원 40여명 참석 '성황'

완주군은 지난 12일 군 농업기술센터 강당에서 품목별농업인연구회 완주군연합회 연시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시총회는 16개회 품목연구회 임원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해 연구회별 활동평가를 따른 결과를 공유하고 금년도 사업계획 수립 및 연구회 발전 방안을 협의하고자 진행됐다. 이날 총회에서 16년 15개 단위연구회 활동을 평가한 결과 우수연구회로 선정된 5개연구회(양파, 블루베리, 감, 화훼, 블랙베리)에 대해서는 표창장과 더불어 선진농업 연수와 공동경영과제 실천의 인센티브가 주어졌다.

또한 새로 가입한 신규연구회(블럼



완주군은 12일 품목별농업인연구회 군연합회 연시총회를 개최했다.

코트) 소개 및 올해 연구회 운영결과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향, 우수연구회 평가기준에 대한 다양한 의견교

환 등과 2017년 군연합회 선진현장교육, 워크숍 추진계획이 수립됐다. /완주=이종복 기자



'건강한 혈관, 건강한 노후'

진안보건소, 경로당 방문 심뇌혈관 예방교육

진안군보건소는 농한기를 맞아 오는 2월말까지 관내 43개 마을 경로당을 방문해 맞춤형 심뇌혈관(뇌졸중)예방교육을 운영한다.

겨울철 차가운 날씨로 인해 혈관이 수축되고 혈압이 증가하여 뇌졸중의 위험이 커지는 등 각별한 주의가 요구돼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뇌졸중의 원인과 전조증상, 대처방

안을 교육하고 심뇌혈관질환 예방을 위한 운동요법, 식이요법, 올바른 생활습관을 알리고자 이번 교육을 진행하게 됐다.

또한 주민들의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을 측정해 건강상태를 체크하고 건강관리 상담을 통해 개인별 맞춤형 심뇌혈관질환 예방 및 관리를 하고 있다. /진안=우태만 기자

특별기획

무주군, 영세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사업 추진

무주군은 영세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사업(융자금액 총 5억 원)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용등급 5등급 이하인 영세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무주군 관내에 사업장이 소재하고 있으며 사업자 등록일로부터 3개월 이상 된 소상공인이면 23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은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대표자 신분증 등 관련 서류를 갖춰 무주군청 산업경제과 산업행정 담당으로 하면 되며 인당 최대 2천만 원까지 신용보증대출을 받을 수 있다.

무주군에 따르면 보증기관은 전북신용보증재단이며 융자은행은 농협과 전북은행 무주지점으로 군에서 이차보전금 5%를 지원한다.

군 관계자는 "영세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사업은 형편이 어려운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든든한 경제적 뒷받침이 될 수 있는 것"이라며 "많은 소상공인들이 저금리의 사업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관련 내용에 대해 읍면 전광판을 비롯한 무주군 홈페이지, 주민회의 등에서 적극 홍보계획"이라고 밝혔다. /무주=전문선 기자

장수군, 축산 보조사업 설명회

장수군은 세계최고의 '장수한우' 육성을 위해 최근 농업기술센터 세미나실에서 2017년도 축산관련 사업 추진 지침 시달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축산과장을 비롯해 각 읍·면 산업팀장이 참여한 가운데, 축산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 조사료 생산지원사업 등 총 47개 사업에 10,345백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갈짚음 수분조절제(블람) 지원사업 등의 사업비 보조율을 전년도 40%에서 50%로 인상, 축산농가의 생산비를 절감하고 축산 경쟁력을 높여 '군민이 중심되는 행복 장수' 실현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진안군, 풀사료 생산확대 경영체 대표 간담회 개최

진안군은 최근 농업기술센터 세미나실에서 진안군 풀사료 경영체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안군 풀사료 생산 확대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2017년도 사업 계획에 대한 안내와 풀사료 재배면적 확대방안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였다.

올해 진안군은 풀사료 수확제조비, 생산장려금, 용담범 유지지 종자, 비료지원 등 총 8억여원을 투입하여 풀사료 재배면적 확대를 통한 양질의 조사료 생산으로 진안고원 한우 품질을 향상시키고 농가소득을 증대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축산물 생산비 가운데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사료비 절감을 위해 용담범 유지지 등을 활용한 풀사료 생산기반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양질의 풀사료 생산·이용으로 축산농가의 사료비 절감과 경영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장수군, 환경오염행위 감시 강화

장수군은 설연휴를 대비해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특별감시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군은 설연휴기간 환경오염물질 불법배출, 악취 등 환경피해 예방을 위해 16일부터 2월 3일까지 단계별 환경오염행위 감시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우선 설연휴 전인 26일까지 관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사전계도 및 자율점검을 하도록 안내하고, 하천 및 중점관리사업장 순찰을 강화한다.

특히 1개조 2명의 특별 지도·점검반을 편성, 18일부터 24일까지 관내 대기·폐수 배출업소, 가축분뇨배출시설 등을 집중 점검해 위반 사항이 적발 될 경우 강력히 처벌 한다고 밝혔다.

또한 설연휴기간인 27일부터 30일까지 상황실을 운영, 환경오염행위를 감시하고 설연휴 후에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등의 장기간 가동중단에 따른 가동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장수=고관호 기자

진안고원

고향의 정(情)이 살아있는
진안고원 고향할머니장터
장~ 보러 오세요

운영일자: 매 주말 운영(4,9일장)
장 소: 진안고원시장 중앙광장 내

진안고원 청정농산물 판매

행사문의
진안군청 전학산업과
063-430-2951